

Propylene, 상승밸리 시작하나?

FOB Korea 755-765달러로 15달러 상승 ... 한국 PP 100% 가동

Propylene 가격은 7월16일 FOB Korea 톤당 755-765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무역상들이 가격인상에 적극 나섬에 따라 장기간의 보합세를 깨고 2주 연속 상승해 오랜만에 750달러를 돌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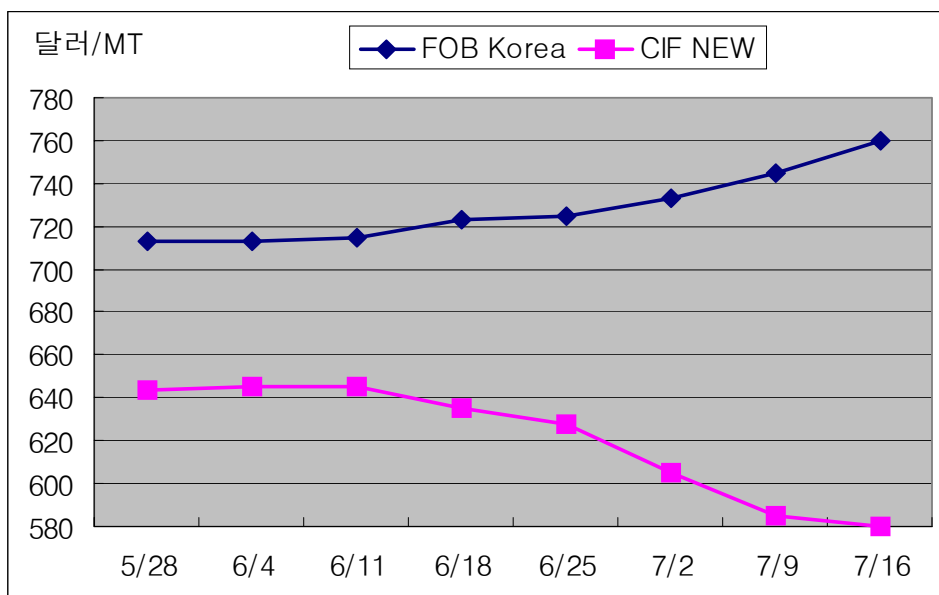
이에 따라 8월 초순 거래되는 프로필렌 1500톤이 무역상에게 FOB Korea 톤당 760달러에 팔렸다.

프로필렌 가격상승은 한국의 PP 생산기업들이 100% 가동하면서 프로필렌 수급이 타이트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중국의 PP 가공기업들이 연말의 휴일 수요를 겨냥해 가공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PP 가격은 Injection/Raffia 그레이드가 톤당 880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.

동남아에서는 프로필렌 공급-수요간에 CFR 820-830달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, FOB US Gulf 650달러와는 톤당 180달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.

Prop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PP 가격은 7월16일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565-575유로, Chemical 그레이드는 560-570유로를 기록해 5유로 하락했다.

<화학저널 2004/07/22>